

도시화와 산림조경

박순조/ 임업연구원

1949년 우리나라 인구가 도시와 농촌에 살고 있는 비율은 농촌에 72% 도시에 28%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970년 대에 와서는 농촌과 도시에 거의 50%씩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발표 되었으나 80년대에 들어 오면서 도시화율이 급격히 진행되어 '92년에 발표된 도시화률은 86%에 이르고 있으며 머지 않아서 도시화율이 9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농촌은 과소화, 고령화(過疎化, 高齡化)가 진행 되어 갈뿐 아니라 노임도 고임금으로 되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형편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농촌에서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므로 도시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산림조경분야가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하여 나가야 우리 삶의 질이 향상 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① 도시화와 산림조경의 필요성

우리의 근본을 따져보면 누구나 농산촌에 근거를 두고 있음은 우리 5000년 역사가 농경문화 임으로 쉽게 증명 되고도 남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비록 도시에 살고 있으나 마음은 항상나무가 우거진 숲을 그리워하고 농촌을 삶의 고향으로 잊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석이나 설날이 오면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믿어진다.

우리민족은 국토의 7할이 산이므로 산과 나무와 더불어 살아왔다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어느 마을이나 마을앞과 뒤에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등

을 정자목이나 신단목으로 심어 가꾸고 신성시하여 왔음을 보고 살아왔다.

이런 연유로 도시인들은 도시에 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연히 푸르름에 대한 그리움과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산천의 자연미는 세계 어느나라와 견주어 보아도 결코 손색이 없다고 믿어진다. 우리 도시의 특색은 외국도시와 같이 대평원에 건설된곳이 없고 산간 계곡이나 분지등에 조성되어 있다고 하여도 크게 틀린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 전체의 경관을 생각할때에는 항상 산림경관을 첫번째 요소로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하여야 할것이나 지금까지 도시 계획은 산림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도시가 건설된것으로 보아진다.

도시전체의 조경은 산림경관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내부의 세부조경은 아름다운 조경수를 많이 심어서 도시 전체가 숲속에 들어 있는것 같이 되어 있어야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 질 것이다. 선진국의 아름다운 도시들은 대부분 거대한 숲속에 건설되어 있는것 같이 착각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것들은 하루 아침에 되어 진것이 아니고 몇 100년씩 걸려서 아름다운 나무를 심고 가꾸고 녹지를 보존하여 온 결과라고 믿어진다. 우리나라도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산림조경이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아름다운 조경수를 많이 심고 가꾸어 우리의 마음에 고향 산천을 간직하고 도시생활을 하여야만 근본을 잊지않고 선한 삶을 살아갈수 있을 것으로 믿고 싶다. 우리나라도 근래 자동차 대수가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통 체증이 날로 심각하여지고 있어 옛날과 같이 몇시간만에 산간계곡에 나가 휴식이나 야유회를 즐기고 돌아올 수가 없게 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내에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 도시민들이 휴식을 취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 도시화와 산림조경의 문제점

도시환경의 개선대책으로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아름다운 조경수를 심고 가꾸므로써 국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

결과 국민정서가 함양되며 도시범죄가 줄어들고 도시 생활의 삭막함이 풍요롭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가장 먼저 투자할 부분이 도시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아름다운 조경수를 많이 심고 가꾸는 일이라고 믿어진다.

도시에 많은 공원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는일은 토지가격이 너무나 고가임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선 국, 공유지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개발하지말고 도시 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 도시가 푸르름에 가득차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국, 공유지가 개발되어 삭막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하여 버리고 만것은 우리나라 도시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 공유지에는 도시소공원을 많이 만들어 아름다운 조경수를 많이 심고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또 근래에는 어느 도시나 공해 때문에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나무는 먼지를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할 뿐 아니라 우리 생존에 필요한 산소를 생산하는 자연의 공장임으로 환경요소로서 나무의 중요성을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근래에 와서는 도시내는 물론 도시 주변의 많은 산림이 공해 피해로 귀중한 조경수가 도처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유지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수 있는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공해에 강한 수종을 앞서 개발하고 심고 가꾸므로써 도시 경관을 유지할수 있을것으로 믿어진다. 또 조경수를 생산하는 업자들은 몇십년씩 정성들여 키운 나무를 과다경쟁으로 생산비도 건질수 없는 상태에서 투매하고 서로 망해 버리고 마는 일이 없이 장기적 안목에서 여러 가지 조경수를 생산하고, 생산되어 팔려나간 조경수는 딸이 시집을 가서 잘 살수있도록 보살피는 부모의 심정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주어야 할 것이다. 조경수를 생산하는 업자들은 가장 값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조경수는 곧 국토를 아름답게 자연을 아름답게 하여 줌으로써 우리 삶의질을 높여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직업에 축복할 직업이 있다면 나는 양묘업이나 관상수를 생산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큰 면적의 도시공원과 적은 규모 일지라도 소공원이 도시내에 많이 조성되어 있다면 휴일마다 산과 계곡을 찾아나서는 인파의 절반은 줄일수 있을것이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회직접비나 간접비를 계산하여 보면 실로 엄청난 금액에 이를것으로 생각한다.

③ 도시화에 다른 산림훼손과 산림조경

1970년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611천ha였으나 1990년에는 6,476천ha로서 20년동안에 135천ha가 감소하여 년평균 6,750ha의 임야가 타용도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감소된 임야면적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용지나 주택용지 도로용지등으로 전용되므로 임야 면적의 감소는 불가피한것으로 생각된다. 좁은 국토에서 도시가 대형화 되어가면서 많은 용지를 필요로하고 국토면적중 가장 많은 산림이 타용도로 전환되어 사용되는것은 불가피 하다고 하겠으나 문제는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켜 도시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도시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하면서 산림을 훼손하였는가 하는일이다. 산림을 훼손할때 일정 비율은 반드시 녹지공간으로 복구하여 조경수를 심고 가꾸도록 하고 훼손지역을 방치 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하였다면 도시 주변에 개발이라 는미명하에 보기 흉한모습으로 산림이 훼손된채 방치되어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국토를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는 국토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는 국민은 아닐지 다시 한번 반성하여 보아야 하겠다.

④ 결론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다. 나는 우리나라 비원,경복궁, 창경궁등을 가보고 감탄할때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선진 몇개국의 도시공원을 돌아보고는 공원의 규모나 거기에 심어져 있는 아름다운 조경수를 보고 우리에게는 왜 이런 공원이 없는가를 한탄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남산을 훼손하고 외인아파트를 건축하였고 그대로 보존하였으면 서울 중심지에 산림공원으로

충분한 면적이 될 임업연구원 홍릉수목원에 많은건물을 건축하므로서 녹지공간을 훼손하고 말았다.

일본동경하면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 임업시험장이 매구로에서 쓰꾸바 연구단지로 옮겨갈 때 그곳에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시민이 휴식할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발상을 좀 바꾸자. 도시화에 알맞는 도시공원을 대,소로 많이 만들고 아름다운 조경수를 많이 심어 삭막한 도시환경을 풍요롭게 바꾸어나가자. 도시공원의 필요성은 홍릉수목원을 개방하고 밀려드는 인파를 보고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매주 일요일 홍릉수목원을 찾아오는 인파가 이것을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 ◆조경은 경관을 조성하는 예술로서, 인류문화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기능적, 그리고 미적 요구에 따라 그양식의 변화를 계속해 발전하고 있다.
- ◆도시화는 한정된 공간에 건축물의 밀집화 치량의 과밀화 숲의 부족이란 도시생태계의 취약성 위에 대기오염물질 및 생활 폐기물과 생활하수의 대량 배출로 환경오염은 자정능력 이상으로 과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 ◆새로운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녹지의 창출에 기여하자.